

2026년 9월 28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OECD, 고금리 부담 속 한국 성장 재확인

OECD 는 9 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중동전쟁과 에너지 공급 충격에도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2026 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6 월 대비 0.1%p 상향한 반면, 2027 년은 3.0%로 0.1%p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세계 성장세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둔화됐지만, 충분한 원유 재고와 전략비축유 방출, 대체 수송경로 활용 및 겔프 지역의 이외 공급 확대 등이 중동발 에너지 충격을 완충했다. 여기에 AI 관련 투자 확대가 생산과 교역을 뒷받침하며 고유가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기 회복력이 물가 및 금융시장 위험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OECD 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을 반영해 G20 물가상승률 전망을 2026 년 4.1%, 2027 년 3.6%로 상향했다. 높은 에너지가격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고금리 장기화가 단기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에너지 공급 차질 장기화와 기상 악화에 따른 추가 공급 충격,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주요 하방 위험으로 제시했다. 특히 AI 투자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전망 조정이 이뤄졌다. OECD 는 2026 년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7%로 1.1%p, 2027 년은 1.9%에서 2.6%로 0.7%p 상향했으며, 두 해 모두 G20 국가 중 가장 큰 상향 폭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산업생산 호조가 올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 확대도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7 년 성장률은 올해의 높은 기저와 완만한 소비 회복을 반영해 2.6%로 둔화될 전망이다. 결국 올해 수출·생산 중심의 성장세가 내년 소비와 내수 회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성장의 지속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성장률 전망의 큰 폭 상향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국내 물가 전망도 2026 년 3.0%, 2027 년 2.7%로 높아졌다. 이번 전망은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성장과 물가 전망이 동시에 상향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경계감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소비와 내수로 얼마나 확산되는지와 함께 고유가가 국내 물가와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전이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AI·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지속 여부는 고금리 환경에서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